

간추린 청렴 소식

[1] 부산지검, '기관장 청렴강의' 실시

부산지검(검사장 고기영)은 '19. 11. 5.(월) '청렴은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전직원 대상 '기관장 청렴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전 세계 청렴관련 주요사례와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교육했다고 하네요 ^^

[2] 의성지청,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의성지청(지청장 손진옥)은 '19. 10. 창의성과 실현가능성을 선정기준으로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청렴 아침편지 실시 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청렴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매주 월요일, 청렴관련 표어·사례 등과 함께 청 내 주요 알림사항을 전달한다고 하네요 ☆

[3] 의정부지검, '신규직원 청렴교육' 실시

의정부지검(검사장 구분선)은 '19. 10. 18.(금) 신규직원의 올바른 공직관과 청렴소양 함양을 위해 '신규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교육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배경지식과 업무 소개 등도 함께 이루어져 신규직원의 빠른 적응을 도왔다고 합니다 ^^

[4] 부천시청, '공무원 행동강령 평가' 실시

부천시청(지청장 이정수)은 '19. 10. 29.(화), 직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 숙지도를 향상하고 반부패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칭찬합니다

검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검찰 구성원을 소개하고 칭찬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인공

서울남부지검 **이윤석 검사** 는

평소 배려깊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직원들과 사건 관계인을 대하였으며, '19년 수능일에는 미결수로 구치소에 있던 수험생 피의자가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 무사히 수능을 치른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래는 이윤석 검사에게 온 편지 중 일부입니다.

... 사건의 중대함을 떠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해주셨던 모습 역시 인상적이었고... 해 뜨기 전 어슴푸레한 수능일 새벽에 직접 구치소와 고사장까지 나오셔서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을 땀 마치 든든한 형님의 모습을 보는 듯 하여 무한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인생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검사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편지 중...)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이 길은 예전에 달리던 길이예요,
달리기 위해 달리는 길이 아닌
즐기기 위해 달리는 길이었어요"

영화 '카(Cars)' 중



12월의 추천영화 **카**
(2006년 개봉 / 감독 존 라세터)는

레이싱 우승과 화려한 성공만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스포츠카 '라이트닝 맥퀸'(목소리 오웬 윌슨 분)이 우연히 '래디 에이터 스프링스'란 한적한 시골마을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서로 도와가며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여러 자동차들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은 성공을 향해 돌진하는 경주가 아니라 하루하루 소중한 여정인 긴 여행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저물어 가는 2019년, 심 없이 달려온 발걸음을 늦추고 천천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변을 살피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청렴 상식이 쑥쑥!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깨끗한 나라, 뉴질랜드

푸른 초원과 쪽빛 하늘,
청정한 자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 뉴질
랜드는 국제투명성기구
(TI)에서 발표하는 부패
인식지수(CPI)에서 매년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대표적인 청렴국가**입니다.



뉴질랜드는 2017년 CPI순위에서 세계 180여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1995년 순위가 처음
발표된 이래 4위 아래로는 내려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청정한 자연 만큼이나 부패없는 깨끗한 사회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2004년 7월, 당시 뉴질랜드의 총리였던 헬렌 클라
크가 탄 관용차량이 지방을 순시하던 중 공무일정에
늦어져 과속을 하자,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벌금을 선고 받았으며,
2009년 11월에는 부총리 였던 빌 잉글리시가 이발을
하는 동안 이발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량이
주차위반에 단속되어 벌금을 물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뉴질랜드는 공직자의 교통법규 위반 조차도
지위나 상황 등을 고려한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무관용 원칙이 보편화 되어 국민
모두가 부패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의식과 함께 공공정보법 등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공공정보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공직
사회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통제를 받지 않는 반부패 특별기구인 **중대
비리조사청(SFO)**을 운영하여 뇌물과 사기 등 부패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규칙 위반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뉴질랜드가 청렴국가로 확고한 자리를 지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청렴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구사(丘史, 일종의 수행원)없이 종 두 명만을
자신의 말 앞·뒤에 두고 가는 정석견의 초라한
행렬을 보며 사람들이 일컬은 말로, '세 사람이
일렬로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산자 같다'는 뜻의
이 성어는 무엇일까요

- ① 산자관원(山字官員) ② 일자관원(一字官員)

※ 힌트 : Monthly청렴 11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 응모기간 : 2019. 12. 16.까지
-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11월 정답은 ② **낙전** 이었습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축! 현병혁(대구서부), 이지은(서울남부), 김정훈(수원),
당첨 김형천(진주), 윤양희(서울동부), 민혜란(의정부),
홍순혁(강릉), 김민영(천안), 김지현(중앙), 백일라(외부)



민원인의 목소리

민원인 의견 사례를 소개합니다

전화를 받고 서류를 찾으러 갔는데 담당자가 당직을
서고 없다며 민원인인 저에게 직접 담당자와 통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여 이해할 수 없었고, 직장 문제로
힘들게 시간을 내 방문했는데 헛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따로 시간을 내서 찾아왔던 민원인은 얼마나 불쾌
했을까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면 대직자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득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한 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열람등사 절차에 대해 불편한 점은 있지만 법에 규정되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친절하고
충분하게 설명해 주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천지청 열람등사(재판중)실 직원들에 대한
민원인의 칭찬 의견이었습니다. ♪

